성미산마을살이•1

우린 마을에서 논다

유창복 지음

공동체, 시민운동, 에세이 | 152*225 | 336쪽 | 값 16,000원 | 도서출판 또하나의문화 | 주제어: 성미산, 마을, 공동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NPO, 공동육아, 대안교육, 대안학교, 장애통합교육, 자치, 두레, 소출력 라디오, 귀촌, 공동주택, 마을 축제, 골목길

내일이 온다는 게 기대되는 날보다 두려운 날이 더 많은 시대. 내일은 더 나을 거라고 다독여 주는 훈훈한 돌봄이 있는 마을이 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태로 열심히 일하지만 소모성 건전지처럼 버려지는 시대. 내 필요와 욕구로 마을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어 일터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어디 사회복지 정책 잘 되어 있는 외국 마을 얘기냐고? 무슨 말씀. 서울에서 지하철 한 번 타면 발 닿는 곳, 성미산마을 이야기다. 여자들이, 노인들이, 몸과 마음이 각기 다른 속도로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풀과 나무, 작은 생명들과 함께 즐겁게 살 수 있는 품을 만드는 마을. 성미산마을로 까칠한 세상에 지친 여러분을 초대한다.

고 위험 사회, 이 도시 어딘가에 정말 아이가 자라기 좋은 마을이 있다면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마을 뒷산을 불필요한 개발로부터 지켜 주는 어른들, 아이들을 위해 게임기를 가게 앞에서 거두는 문구점 사장님, 아이들과 자전거로 유럽을 횡단하는 택견 사부님,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 유기농 아이스크림을 파는 카페, 아이들이 꼬물꼬물 자기 물건 갖고 나와 보자기에 펼쳐 놓고 사고팔며 경제 관념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보자기장터,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장애가 없는 아이들이 한데 어울려 놀 수 있는 교육을 고민하는 마을학교,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구운 맛난 쿠키를 파는 미니샵, 엄마 아빠가 늦게 퇴근해도 아이들을 돌봐 주는 믿음직하고 다정한 이웃이 있는 마을. 무엇보다도 아이들끼리 서로를 돌보며 놀다가 알차게 익는 그 마을.

많은 돈이 없어도 건강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노하우가 짱가 유창복의 성미산마을살이·1『우린 마을에서 논다』에서 흘러나온다.

돌봄과 착한 일자리가 샘솟는 성미산 마을에 놀러 오세요!

지난 6월, <성미산마을극장>에서 성년식이 열렸다. 이 마을에서 자라 성년을 맞은 아이들을 위한 의례다. 갓난쟁이, 코흘리개 아이들이 성인이 된 것처럼 마을도 같이 나이를 먹었다. 어느새 열여섯 해. "우리 아이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한국 최초 공동육아협동조합이 있는 서울 마포구 동네로 민들레 홀씨처럼 하나둘 날아든 맞벌이 부부들이 있었다. 그들은 아이들이 날마다 나들이하는 마을 뒷산 성미산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지역 주민들과 합심해 산을 지켜 내면서 '성미산마을'이란 이름을 얻는다.

이들은 2년여 성미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도시 속 공동체의 싹을 틔우고 기운을 모은다. 일 년에 한 번 마을축제를 벌이다 축제를 날마다 하고 싶어 갖가지 마을동아리들의 놀이터인 <성미산마을극장>을 만들고, 삶과 앎이 일치하는 마을학교를 꿈꾸며 12년제 대안학교 <성미산학교>를 세우고는 기운을 소진할 만큼의 녹록치 않은 깔

딱고개를 세 번이나 마주한다. 그러나 '흥' 많고 '신' 많은 저자 유창복을 비롯한 성미산마을 사람들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체득한 소통법으로 "마을에서 하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다." "어쨌든 된다."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난관을 극복해 나가며 '불패 신화' '끝 모를 낙관주의' '정시 도착 신화'를 만들어 간다. "진짜 하고 싶은, 그래서 올인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판이 벌어지고, 과제와 사명이 앞서기보다는 각 개인 개인의 욕망과 취향이 자유롭게 용인되는 무겁지 않은 분위기는 어깨와 목에 준 "힘을 빼면" 나온다고 낙관한다.

이런 낙관은 마을을 떠도는 바이러스가 되어 온 마을 감염시켜, 마을기업의 시대를 열었다. 성미산마을 형성의 밑거름이 된 제1호 마을기업 <마포두레생협>, 손맛 좋은 동네 엄마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주고, 바깥일에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반찬 걱정을 덜어 주는 유기농 반찬 가게이자 마을사랑방 <동네부엌>, 차 수리 부품의 원가 공개와 착한 가격 때문에 지금은 문을 닫고 만 <차병원>, 수요음악회가 열리는 마을카페 <작은나무>와 유기농 마을식당 <성미산밥상> 등. 바이러스는 <멋진지렁이>에 침투했다가 <카셰어링>, <자전거 타기>를 낳고, <한땀두레>, <비누두레>, <미니샵>, <마을공방> 등 손으로 마을을 빚게도 한다. 또한 마을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동네 곳곳의 소식을 전해 주는 동네 방송국 <마포FM>, 어르신들에게 마음이 담긴 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두레> 등으로 이어지고, 또다시 공동주택, 귀촌 등 새 길을 내는 데까지 미치고 있다.

곡절을 수없이 겪었음에도 천생 낙관주의자, 천생 축제주의자 486 남자 유창복은 오늘도 새로운 일을 벌일 생각에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고 독자들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마을하자'고 꼬드긴다.

개발론자들에 맞서 성미산을 지키는 지난한 싸움은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또한 성미산마을살이 모습은 다양한 이력, 다양한 세대의 인생살이가 펼쳐지는 두 번째 책『성미산인간극장』에서 조만간 또 만나게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유창복

1961년 정월 합천에서 났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안돼 이농하는 부모를 따라 귀경, 대학 때까지 미아리에서 세탁소집 막내아들로 자랐다. 대학에 입학하던 해, 광주 참사를 듣고 1980년대를 거리에서, 노동 현장에서 보낸다. 89년 결혼을 한 뒤, 1990년대 십 년간 "돈을 벌자, 아니 '자본'을 벌자, 먹고살 돈이 아니라 뭔가 도모할 수 있는 돈을 만들자."며 세탁기 장사며 항공사 광고 장사며, 창고 사업 등등 업종을 묻지 않고 창업한다. 사업은 그런대로 재밌게 잘되었지만 돈은 못 챙긴다. 1996년 아들놈을 키운다고 성미산에 깃든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마포두레생협〉을 함께하고, 성미산투쟁에 나서고, 〈성미산학교〉를 만들다 바닥 치고 마을축제로 되살아나서는 마을카페 〈작은나무〉, 〈성미산마을극장〉 일에 다시 신명을 낸다. 어느덧 본격적인 마을살이 10년째, 인생 후반전을 모색하려고 한다. 물론 성미산마을이 그 터전이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성미산마을극장 대표, (사)마포FM 이사, (사)사람과마을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마을에서는 '짱가'로 불린다.

차례

책머리에 5
프롤로그 12
마을지도 18

마을나무, 그 열매, 줄기, 씨앗들
두 아이의 성년식 21　나는 어떻게 마을 사람이 되었나? 29
마을나무의 씨앗들, 방과후, 생협 37

산이 우리를 지켰어요!
성미산아 걱정 마! 우리가 지켜 줄게! 47　역사는 밤의 텐트 속에서 59
3·13대첩, 그 대반전의 드라마 66　서울시장 지하철 기습 면담 73
성미산이 없으면 낮도 밤과 같은 것을 77　성미산아, 지금도 잘 있니? 88

우린 마을에서 논다
성미산마을에 살아 행복합니다 99
축제를 만들고, 축제 일부가 되어 주신 모든 분들께 101
나, 연극하는 남자야! 110　마을극장, 그 빈 공간의 의미 119

마을은 학교로, 학교는 마을로
여기는 성미산학교입니다 125　대안학교 꿈을 꾸다 138
세 번만 엎어지면 학교가 된다? 147　꿈터, 배움터, 마을학교의 꿈 159

지속 가능한 마을살이
마을기업의 시대가 열리다 167　멋진 지렁이 녹색을 상상하다 191
손으로 마을을 빚다 202　경계를 넘어 214　또다시 새길 내기 228

모두 사람이 한 겁니다
젖은 날, 우산이 되어 준 이들 241　마을 1.5세대와 2세대 249
성미산 스타 탄생 257　천하무적 시설조 268

성미산마을, 이것이 궁금하다!
회의주의자들의 소통법 273　마을엔 신화가 있다 285
마을살이, 위기와 기회 290　경계와 문턱 295
하고 싶은 사람이 다 한다? 299　마을 권력의 문제 304
마을살이와 사회적기업 309

에필로그 314

마을은 삶이 벌어지는 곳 319
성미산마을의 역사 330

책속에서

대학을 들어간 그해 1980년. 80년 5월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냥 그 자체로 세상의 모든 젊음을 들끓게 했다. 광주의 소식을 듣고 있는 것, 멀쩡히 살아 있는 것만도 미안하고 죄스러웠다. 그때부터 내 한 몸 내 앞날 걱정하지 않고 참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다. (…) 그때의 활동을 통해 운동도 '생활'이라는 걸 알았다. 학생운동이든 노동 운동이든 사회 운동이든 개별 운동에도 개인마다 취향이 있고 호불호가 있고 적성이 있는 법이다. 나는 대학교 탈반 활동이 가장 잘 맞았다. 그걸 보면 나는 역시 사람들 속에, 사람들과 함께 신나게 호흡하는 일이 제격이고 아마 그것이 오랜 성미산마을살이의 뿌리가 되지 않았나 싶다. (33~34쪽)

텅 빈 무대 위에 내가 서 있다. 올해 2010년 겨울, 극단 무말랭이 단원으로 나는 무대에 섰다. (…) 처음엔 그 끝이 아득해도, 둘러보면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미친놈 널뛰듯 하는 것 같아도, 막이 오르고 사람들의 눈빛이 우리에게 집중되고 연출의 큐 사인이 나면 우린 한데 얼려 굿판을 벌인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살자는 눈물겨운 굿판을. 그게 바로 지난 십여 년 내가 성미산에서 산 한 줄 삶인 것만 같다. 그리고 거기에 아직껏, 후회는…, 없다. (35~36쪽)

성미산마을살이의 시작점을 거슬러 가면 바로 그 공동육아의 부모들과 아이들의 공간, <우리어린이집>이 있다. 1994년 연남동에 우리어린이집을 만들고 이듬해 성산동으로 터전을 옮긴 후, 이 마을의 고참으로 지금껏 살아온 이들은 대체로 1980년대 초반에 20대를 시작한 이들이다. 대부분 고교와 대학 시절에 민주화 운동의 열기를 몸으로 겪은 소위 '386세대'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청춘을 졸업하고 각자 결혼하여 첫아이를 낳은 것이다. 이들에게 결혼과 출산, 육아만큼 전면적이고 혁명적인 삶의 변화가 또 있을까.

처음에 이들을 움직인 것은 사실 저간의 개인사가 가장 큰 동력이었다. 즉 국가와 시장이 해결해 주지 못하면 우리가 한다, 는 자발성과 비판 정신이 바로 그것. 소소한 일상의 거대한 필요, 그것을 우리가 '대안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작동된 것이다. (39쪽)

"아이들에게 고향을 만들어 주고 싶었어요. 살기 좋은 곳만을 의미하는 게 아닌 우리들만의 추억이 있는 곳, 오랫동안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고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어른들이 이 동네에서 오래오래 같이 살 수 있어야만 했다. 어린이집 말고 새로운 뭔가가 없으면 어른들의 관계가 중단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몇몇 집은 이사를 가고 한동네 살아도 전처럼 그렇게 긴밀하지 않게 된 것이 슬슬 모두의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 생협의 상무인 상호엄마는 마을에 살면서 "동네에서 함께 살던 사람들이 이사 가는 것이 제일 싫었다."고 한다. '우릴 버리고 대체 왜 가나?' 속상

하기도 했단다. 뭔가 새로운 관계의 끈이 필요했다.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당이 필요했다. '먹을거리'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43~44쪽)

생협의 설립은 공동육아의 가치를 '육아가 아닌 먹을거리'로 지역과 나누고 마을에 내보인 첫 시도라 할 수 있다. '육아에서 먹을거리로, 소수 조합원에서 광범한 지역사회로의 전환'. 이것이 바로 생협이 우리 마을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의미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그 내용은 먹을거리에서 마을기업으로, 방과후 교육에서 대안학교로, 성미산이라는 생태 환경 운동과 마을축제, 문화와 예술로까지 이어지는 모태가 되었다. 결국 생협은 어린이집, 방과후교실과 함께 성미산마을의 오늘을 형성한 최초 유전자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45쪽)

우리는 성미산과 한 약속을 2년 3개월 만에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산을 지키는 길고 지난한 싸움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웃과 다정한 주민으로 다시 만났다. 그러고 보니 결국 성미산이 우리를, 성미산마을을 지킨 셈이다. (87쪽)

성미산학교 이야기를 글로 푸는 일은 수년이 지났어도 내게 무척 힘든 작업이다. 글감을 찾으려 기억을 더듬기 시작하면 그 당시의 상황과 감정이 생생히 살아나 도저히 '거리 두기'가 안 된다. 학교가 엎어졌다 일어서기를 반복한 것처럼 나의 글쓰기도 엎어졌다 일어서기를 거듭하는 중이다. (158쪽)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은 겉으로는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은근한' 장벽이 마을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부터 마을에 살고 있던 경우나 이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마을살이를 하게 된 이후에 느끼게 되는 것이니 어찌 보면 심각하다 할 수 있겠다. 한마디로 어디엔가, 뭔가에 끼어들기가 뭣한 구석이 있다는 것이다. 자기들끼리만 알아듣는 대화, 자기들끼리만 별명 지어 부르기 등등이 그런 예라고 한다. (296~297쪽)

처음에 마을일이 다 그렇듯 마을기업들이 처음부터 기업의 형상을 했거나 기업을 의도하고 시작되지는 않았다. 시작은 정말 몇몇 주민들이 아주 소박하게 동아리처럼 시작했다. 그러다 일이 안정되고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운영을 좀 더 책임 있고 규모 있게 할 필요가 생겼다. 그제야 전담 활동가를 두게 되고 활동가에게 약간의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고 안정적인 재정 대책과 수익성을 따지게 되면서 서서히 '기업'의 꼴로 변모해 왔다. 활동 주체들의 모습도 '동아리 모둠'에서 '담당자와 운영위원회'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지금 마을에서는 이곳저곳에서 각개 약진하며 진행된 다양한 '동아리' 수준의 활동들이 '마을기업'의 형태로 전환되거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물론 새로운 활동은 여전히 동아리 모습으로 출발한다. 그래서 활동이 규모 있고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갈 뿐 아니라 마을 내부에 그치던 활동이 손쉽게 지역사회로 열리고 있다. 반면 소소한 즐거움으로 시작된 활동이 부담스런 일이 되기도 하고 전에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갈등과 과제가 던져지기도 한다. (309~310쪽)

마을 이야기는 말 그대로 '말'로 할 수도 있고 '글'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게시판에 다는 댓글과 사진 몇 장으로, 누구는 노래로, 몸짓으로 춤으로, 마을에서 풀어내는 수다로, 생맥주 몇 잔에 취해 쏟아 내는 과거의 서운했거나 기뻤던 기억들로, 그러다 재미가 붙으면 심야 노래방의 깜짝 놀랄 광기로 풀어내는 우리의 기억과 욕망이 곧 마

을의 실체가 아닐까? 우리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나름의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의 합이 비로소 '우리 마을'이다. 그러면서도 내가 나로 존재하고 나로서도 충분히 안전하고 편안한 마을, 함께하면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가벼운 흥분이 스멀거리는 마을, 그래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결국 함께하면 즐거운 마을이 '우리 마을'이다. (317쪽)